

與조승래, '김용 무공천'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

등록 2026.04.28 10:48:08 | 수정 2026.04.28 11:40:24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4.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창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정한 데 대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는 첫 번째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막판까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당의 전략 단위라든지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일선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당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의견을 좀 들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이 가장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인가'라는 물음엔, "그렇게들 일선에 뛰고 있는 후보들은 제게 의견들을 보내 왔다"며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이런 쪽에서는 당에서 결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 정치적 지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행위들과 당이 공천을 하는 공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김 전 부원장이 이날) 오후에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 선언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저희들은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 공천 결정을 했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겠나"라며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가보다는 저희들은 김용남의 이름으로 또 민주당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지역 간 거래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은 명확히 했다"며 "울산과 평택을 주고받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울산 내부에 울산시장 혹은 구청장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논의는 열어두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